

研究論文

조선 전기 경연(經筵)의 이념과 전개

－ 태조 ~ 중종 연간을 중심으로 －

신 동 은*

I. 서론	IV. 결론
II. 경연의 이념	<참고문헌>
III. 경연의 전개	<국문요약>

I. 서론

경연(經筵)은 조선시대 왕과 사대부들이 함께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국정을 논의했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예종 11년(1116)에 경서를 강론하였던 것이 효시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조 원년(1392)에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왕들이 개인적으로 신하를 불러 책을 읽는 시강(侍講) 정도로 이해되었던 경연(을 지식 관료 집단과 정기적으로 경서를 강론하고 시무를 논의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왔다.

조선 초기에 이미 경연이 설치되고 왕에게 경연에 나아가 학문할 것이 계속 요구되었지만 경연이 완숙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은 성종과 중종에 이르러서이다. 경연이 규칙적으로 열렸을 뿐 아니라 정치적 쟁점들이 경연장에서 토론되었고 그 주장의 근거들을 경전에서 찾음으로써 경연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사림세력

* 상명대학교 강사, 교육학 전공(dongseun@hanmail.net).

1) 『태조실록』 1년 11월 12일; 『태종실록』 1년 3월 23일.

의 정치 진출과 함께 성왕(聖王)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기되면서 경연은 더욱 중시되었다. 경연의 위상 변화에 부응하여 『조선왕조실록』의 경연관련 기록도 상당히 늘어나 경연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이 시기에 이르러 가능해진다.

유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은 왕의 정치 행위가 무엇보다 통치자의 수신에 근거해야 한다고 이해하였다. “만약 임금이 몸소 실천하지 않고 법령으로만 금한다면 백성들이 어찌 교화될 수 있겠습니까?”²⁾라고 하듯이, 유가적 이상사회는 치자의 자기수양에 근거하여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연은 이러한 이념, 즉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학문을 통해 성인군주로 만들어야 한다는 유가철학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또한 경연은 임금과 신하들이 경서를 함께 강론하면서 정치철학을 공유하고 이에 근거하여 당대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였다.

지금까지 경연은 적잖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먼저 제도사적 측면에서 경연관의 직제를 다룬 경우,³⁾ 경연 전담기구를 다룬 연구,⁴⁾ 특정 왕대의 경연의 특징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⁵⁾ 경연장에서 이루어졌던 논쟁들을 분석한 것으로, 특정 교재를 둘러싸고 논의되었던 것들을 분석하거나,⁶⁾ 경연장에서 이루어졌던 간쟁을 분석한 논문,⁷⁾ 사람세력이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해간 과정을 경연을 통해 추적한 연구⁸⁾가 있다.

이처럼 경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경연의 직제,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2) 『중종실록』 3년 3월 15일.

3) 池斗煥, 「조선전기 경연관 직제의 변천」, 『한국사논총』, 20(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7).

4) 姜泰訓, 「朝鮮 前期 經筵制度的 發達 過程」, 『教育學研究』, 31권(한국교육학회, 1993).

5) 權延雄, 「世宗朝의 經筵과 儒學」, 『世宗朝文化研究(I)』(博英社, 1982); 權延雄, 「朝鮮 成宗朝의 經筵」, 『韓國文化的 諸問題』(시사영어사, 1985); 南智大, 「朝鮮初期 經筵制度: 世宗·文宗年間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6권(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權延雄, 「朝鮮 中宗代의 經筵」, 『史學論叢: 吉玄益教授停年紀念』(서울: 吉玄益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刊行委員會, 1996).

6) 池斗煥, 「朝鮮前期 『大學衍義』이해과정」, 『태동고전연구』, 10권(태동고전연구소, 1993); 吳恒寧, 「朝鮮初期 經筵의 『資治通鑑綱目』 강의」, 『韓國思想史學』, 9권(韓國思想史學會, 1997); 박성순, 「조선중기 經筵科目 『心經』의 정착과정과 그 정치적 의미」, 『韓國思想史學』, 22권(韓國思想史學會, 2004).

7) 權延雄, 「朝鮮前期 經筵의 諫諍論」, 『慶北史學』, 14권(慶北史學會, 1991).

8) 鄭在薰, 「조선중기의 經筵과 帝王學: 光海君~顯宗년간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184권(歷史學會, 2004).

물론이고, 이를 넘어 경연장에서 실제로 논의되었던 것을 분석함으로써 왕과 관료들간의 학습과 토론이라는 경연의 역사적 의의를 밝혀 주었을 뿐 아니라, 경연을 통해 성리학의 토착화 과정, 조선시대의 운영원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이해하기로는 경연이 기초하고 있는 이념과 그것의 전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성학군주론이라는 경연의 이념, 경연의 설강 원리, 경연교재를 둘러싼 논의, 경연관과 왕의 관계 등의 문제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연의 이념과 전개 과정을 고찰하였다. 성인군주라는 이념이 경연제도에 정착되는 과정을 경연 설강 형태의 변화, 강독교재, 경연관과 왕의 관계정립을 둘러싸고 적용되었던 논리들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는 조선 초에 설립된 경연이 사림들의 정치진출과 함께 완숙한 형태로 발전되는 한 단락으로서 중종대까지로 제한하였다. 중종대에는 경연을 통해 각 정치세력들이 자기 입장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개혁의 방안을 활발하게 개진함으로써 경연의 횡수에서나 논의 강도에 있어서 매우 발달된 형태를 보여준다. 중종기까지의 경연의 전개과정을 논의함으로써 이후의 경연의 변화 양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경연의 이념

조선시대는 왕의 통치행위가 결정적인 힘을 갖는 군주사회였다. 그러나 임금보다 백성을 앞에 두는 민본주의⁹⁾가 군주의 정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었다. 왕(王)이라는 한자가 상징하는 것과 같이 왕은 하늘과 백성을 잇는 자로서 백성들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안정된 삶의 기틀을 정비하는 임무를 갖는다.

『대학장구』의 서문에서 주희(朱熹)는 유가에서 이상적인 사회로 설정하는 삼대를 “다스림이 융성하게 펼쳐지고 좋은 풍습이 실천되었던 사회”¹⁰⁾로 묘사한다. 주희는 “화민성속(化民成俗)”의 문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제도가 광범위하

9) 『孟子』 「盡心下」,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10) 『大學章句』 「序」, “此古昔盛時, 所以治隆於上, 俗美於下, 而非後世之所能及也.”

고 짜임새 있게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선한 본성을 체득한 요순과 같은 성왕이 본성에 기초하여 예(禮)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통치자의 수신에 기초하여 교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은 명명덕(明明德)을 본(本)으로, 신민(新民)을 말(末)로 이해하는 『대학』의 강령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음의 인용문은 왕이 수신(修身)의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書經』—인용자 주)은 모두 인주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며 마음을 보존하여 정치(治)를 하는 근원입니다. 그 끝에 이르기를 ‘인심(人心)은 위태하고 도심(道心)은 미묘하니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이(專一)해야만 그 중도(中道)를 잡아 지킬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하였으니 조금이라도 사된 뜻(私意)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된 뜻이 한 번 맹동(萌動)한다면 정밀하고 전일함이 아닙니다. 우왕(禹王)이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절을 하였으며, 탕왕(湯王)이 간언(諫言)을 따르고 어기지 않은 것은 이 일 때문입니다.¹¹⁾

순임금이 전수했다는 이른바 16자 심법은 인간의 도심과 배타적 욕망을 분별하고 도심을 확충해가는 공부법으로서 왕뿐만이 아니라 유학의 학자들이 자기 수양의 지침으로 삼았던 말이다. 주희는 여기에서 제시된 ‘정밀하고(惟精) 한결같이 하는(惟一)’ 공부를 택선과 고집,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원리로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¹²⁾ 이러한 공부에 기초한 수신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정치 행위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교화는 임금이라야 잘할 수 있다”¹³⁾고 하듯이, 통치의 최정점에 있는 왕은 유가적 이상사회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왕에게 수기의 임무는 엄중한 것이었다.

11) 『중종실록』 3년 2월 25일.

12) 『朱子語類』 卷78, “堯舜以來, 所傳未有他議論, 先有此言, 聖人心法, 無以易此, 經中此意, 極多. 所謂擇善而固執之, 擇善即惟精也, 固執即惟一也. 又如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 皆惟精也, 篤行又是惟一也. 又如明善, 是惟精也, 誠之, 便是惟一也. 『大學』致知格物, 非惟精不可, 能誠意則惟一矣.”

13) 『중종실록』 12년 8월 20일.

옛날의 성왕(聖王)들은 감히 스스로 거룩한 체하지 않고 사부(師傅)의 관원이 있었는데, 후세에 내려오면서 사부의 직(職)을 폐하고 경연의 관원을 설치했으니, 경연의 선택은 경사(經史)를 암기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어진 선비를 예로써 접대하고 총애하는 사람을 친압(親狎)하지 않아서 강론하는 즈음에 여유 있게 자득하고 도덕을 함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연에 임하는 것을 하루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¹⁴⁾

설경(說經) 황여헌(黃汝獻)이 아뢰기를, “신은 항상 전하는 글을 좋아하는 인군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경연에 나가지 않으시니, 신은 학문을 여사(餘事)로 삼으심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대저 덕을 닦는 것이 근본이요, 글을 배우는 것은 말단입니다. 그러나 사장(詞章)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리(性理)의 학문에 이르러서는 지려(智慮)가 증장(增長)되는 것이니, 덕을 닦고 마음을 바로 하는 근본입니다.”¹⁵⁾

학자들과의 학문 토론의 장으로서 경연은 고대의 성왕들에게 있었던 사부제도에 비견되는 것이다. 왕의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이 무엇보다도 왕 자신의 수신에 있다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학문은 왕에게 ‘여사’가 아니다. 『논어』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는 실천을 한 후에 글을 배우라’고 하지만,¹⁶⁾ 인용문에서는 그것이 사장의 학문에 해당하는 것이고,¹⁷⁾ 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리의 학문이 불가결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왕으로서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경연에 나와 학문을 하는 것은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로 설명된다.¹⁸⁾ 더욱이 정치 제도의 이해나 행정 능력의 숙달 등 일종의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실무교육의 차원에서 경연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일정기간만 베풀어지겠지만, 성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비추어보는 자기 수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연은 왕으로 살아가는 한 끝마침이 없다. 정치 행위는 단지 제도와 통치술에 대한

14) 『태종실록』 3년 3월 3일.

15) 『중종실록』 4년 11월 7일.

16) 『論語』 「學而」,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17) 주희도 이 구절의 ‘文’을 ‘詩書禮樂의 文’으로 명시하고 있다.

18) 『중종실록』 15년 4월 6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품격을 바탕으로 한다. 이와 같이 경연은 무엇보다도 자기 수양이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동료라 할 수 있는 유학의 지식관료들과 학문을 강론함으로써 왕의 수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경연의 이러한 이념이 조선시대 초기의 왕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다. 예컨대 경연에 나아가 진강하라는 사간의 말에 태조는 “내가 비록 경연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편전에서 유경(劉敬)으로 하여금 『대학연의』를 강론하게 하고 있다”¹⁹⁾라고 대답한다. 태조는 경연을 개인적으로 신하를 불러서 경서를 시강하는 정도로 이해한다. 이를 후 올려진 상소를 통해 대신들은 경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간관(諫官)이 상소(上疏)하였다. “신 등이 듣자옵건대, 군주의 마음은 정치를 하는 근원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따라서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온갖 욕심이 이를 공격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존양(存養)성찰(省察)의 공부를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임금의 공궁업업(兢兢業業)과 탕왕(湯王)과 문왕(文王)의 울울익익(慄慄翼翼)은 세상을 태평하고 화락하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한 가지라도 이에 어긋나서 아침하는 말을 달게 여긴다면 공광(孔光)과 장우(張禹)의 무리들이 나와서 마음이 날로 안일(安逸)해질 것이며, 신선(神仙)을 사모한다면 문성장군(文成將軍)과 오리장군(五利將軍)의 무리들이 나와서 마음이 날로 방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 마음을 바로잡을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연을 설치하고서도 한갓 그 명칭만 있을 뿐이지 나와서 강론하는 때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의 생각에는 ‘넓은 집과 큰 뜰 안의 어느 곳이나 학문을 위한 곳인데, 왜 반드시 일정한 법도에 구속되어 날마다 경연에 나간 후에야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군주의 학문은 한갓 외우고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경연에 나가서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것은 첫째는 어진 사대부를 접견할 때가 많음으로써 그 덕성을 훈도(薰陶)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가까이할 때가 적음으로써 그 태타(怠惰)함을 떨치도록 시키기 때문입니다.”²⁰⁾

19) 『태조실록』 1년 11월 12일.

인용문에서는 먼저 임금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하는 것이 상이함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왕으로서 “그 마음을 바로잡을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이것은 임금의 치심(治心)과 경연을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그리고 경연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내놓기 전에 임금의 경연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다. “넓은 집과 큰 뜰 안의 어느 곳이나 학문을 위한 곳”이라는 말은 며칠 전 왕이 보여준 태도를 반영해주는 것이다. 즉 왕의 학문을 위해서라면 어디에서든 책을 읽으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연은 왕의 개인적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대부와의 만남의 장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임금 스스로 정치의 근원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치심의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인데, 그 때의 보필자는 유학의 사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경연은 절대적 권력을 갖는 임금의 자기 수양이 정치적 행위의 근본이라는 전제에서, 임금과 지식인 집단이 경서를 함께 강론함으로써 임금의 수신을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식관료들은 단지 신하일 뿐 아니라 학문적 정치적 동반자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경연 이념은 이미 국초에 제기되고 구체적인 형식으로 정립되었지만, 세종, 성종, 중종기를 거치면서 보다 완숙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경연의 전개 과정을 강독 형태, 경연 교재, 경연관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III. 경연의 전개

1. 경연 설강 형태의 변화

태조 때 설치된 경연이 정례화된 것은 세종에 이르러서이다. 태종은 경연을 군주의 호학(好學) 정도로 이해하는가 하면, 매일 경연에 나가라는 신하들의 말에 수긍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경연을 회피하는 느낌을 준다. 이에 반해 세종은 경연을 정기적으로 열 뿐 아니라 경연장에서 인재 등용, 대인과 소인의 분별, 신하들의 간쟁

20) 『태조실록』 1년 11월 14일.

을 대하는 태도 등의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옛 제도를 연구하고 새로 편찬한 『경제육전』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등 연구기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경연의 형태인 조강, 주장, 석강의 용어는 단종 때 올려진 경연사목(經筵事目)에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성종에 이르러서이다. 강의는 경연관의 음독(音讀)과 해석, 왕의 음독과 해석, 논의로 구성되는데, 강의 앞부분에는 이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두었다. 조선시대의 경연은 겨울이나 여름에 별도의 방학을 두지 않았다. 대신 여름에는 주강을 폐하거나 겨울에는 조강을 폐하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경연은 단지 책을 읽는 자리가 아니라 사대부를 만나서 성학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는 점이 경연을 폐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제시되었다.²¹⁾ 성종 대 경연의 가장 큰 특징은 3강 이외에 야대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야대의 실시를 주장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장령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제왕의 학문이 귀중한 것은 정치를 시행하는 데 있고 장구를 외우는 말단에 있지 아니합니다. 조강(朝講) 때에는 상참(常參)·시사(視事)·윤대(輪對) 및 수령(守令)의 배사(拜辭)가 있기 때문에 오래 경연에 머무르시지 못하나, 주장(晝講)과 석강(夕講)은 잡된 일이 없으니, 전하께서 마땅히 조용히 도를 강하여 마음에 깨달아 얻고, 이치를 헤아려서 일을 할 때에 실행하여 성학의 지극한 공을 이룩하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또 듣건대, 옛 제왕은 경(經)과 도(道)를 강론(講論)하여 밤이 오랜 뒤에야 과하였으므로 후세에 미담(美談)이 되었는데, 이제 전하께서 하루 세 번 경연에 나아가 잠시도 겨를이 없으시니, 이는 성왕의 공입니다. 다만 야대(夜對)를 꺾(闕)하였으니, 원컨대 이제부터 밤에 경연관을 불러서 경사(經史)를 강론하여 치도의 중요함을 참구(參究)하게 하소서” 하였다.²²⁾

조강은 대신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식의 경연이라는 의미를 갖지만,²³⁾ 조참, 상참 등 국정 회의 이후에 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강론한다는 경연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인용문에서는 세 번의 진강에 더해 야대를 시행할 것을

21) 『성종실록』 10년 4월 21일.

22) 『성종실록』 2년 윤9월 25일.

23) 성종대 실록 기록에서는 하루 경연 일과를 ‘경연’— 주장—석강의 형식으로 적고 있다.

건의하고 있다. 윤9월 27일 야대가 처음 시행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10월부터는 야대가 정례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야대가 주장보다 훨씬 낫다”는 정이천(程伊川)의 말이 빈번하게 인용되었고 침잠해서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야대가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중종대에는 『근사록』과 『대학연의』를 세밀하게 논란할 수 있는 야대에서 강독하지는 건의가 있었다.²⁴⁾ 야대를 강조하는 논리는 이후에 다음과 같이 발전하였다.

참찬관 경세창(慶世昌)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날마다 세 번씩 경연에 납시어도 오히려 부족하시어 또 야대(夜對)에 납시니,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 부지런하고 또 지극하십니다. 조종조에서 편전(便殿)에 납시어 야대하신 것은 오로지 논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릇 학자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물러나서는 붕우와 더불어 강습하고, 그래도 해득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스승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하께서는 대내(大內)에 거처하시므로 질문할 때가 없으시니, 마땅히 논란하여 마음으로 얻으셔야 합니다.”²⁵⁾

동학(同學)으로서 붕우는 덕으로 권면해주는 사람이다. 인용문에서는 임금과 경연관의 관계를 붕우의 관계로 설명한다. 이것은 임금과 경연관이 정치적으로는 상하관계이지만 “덕” 혹은 “학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붕우의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경연을 “학문의 논리”로 설명하는 관점이다. 중종대에는 야대에 더하여 소대(召對)라는 형식의 경연이 제기되었다.

남곤이 아뢰기를, “세종조에서는…황희(黃喜)·허조(許稠) 같은 이는 모두 당시의 유명한 재상들이는데, 대내(大內)에 드나들게 하는가 하면 침전에까지 이르러 치도를 논란하면서 군신의 예절을 차리지 않고 사지를 펴고 앉아 품은 생각을 다 말하게 하여 상하 간에 의심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정이 청명하고 정령(政令)이 올바로 나왔습니다.…성종께서 춘추가 한창이시어 몸소 정사를 돌보시자 대신과 시종들을 날마다 편전에 접대하면서 치도를 강론하고 심지어는 야대까지 하여 밤이 된 뒤에야 파하곤 하였습니

24) 『중종실록』 12년 윤12월 19일; 『중종실록』 17년 3월 12일.

25) 『중종실록』 4년 2월 29일.

다. …대신과 시중을 불시로 편전에 소대하여 득실을 논의하실 것이며 혹은 승지를 대내에 불러들여 일을 아뢰게 하신다면 성총(聖聰)을 돕고 조종의 다스림을 오늘날 다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²⁶⁾

인용문에서 제기된 소대는 늦은 밤 “침전에까지” 대신들을 불러 정사를 논의했던 형식이었다. 이것은 임금의 궁중에 거처하더라도 정치의 논란은 환관이 아니라 지식관료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부각시킨다. 이처럼 군신 간에 격의 없이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치도를 강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제기된 소대가 중종 9년 8월 5일의 기록에서는 당시 진강 중이던 『예기』를 강론하는 형식으로 실시된 이후 경연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3장 이외의 야대와 소대의 실시를 주장하면서 제기된 논리는 신하의 입장에서는 지엄한 군주 앞에서 회포를 다 풀기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기되는가 하면,²⁷⁾ 임금의 입장에서는 신하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선악, 현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제시된다. 즉 정치행위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쓰는 것으로서, 그것은 임금의 책임이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신하를 자주 접해서 그의 말을 들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⁸⁾

결국 소대와 야대를 포함한 경연이 정착·정례화 되는 것은 두 가지 논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왕에 대한 지식관료의 위상이 명확해지는 것과 관련된다. 즉 왕과 지식관료의 관계를 “학문”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관계가 권면하고 논란하는 붕우로 빗대어지거나 왕과 정치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환관이 아닌 지식관료라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성인군주를 만들기 위한 보필자이자 파트너로서의 위치가 제기되는 것이다. 둘째, 경연은 왕으로 살아가는 한 폐할 수 없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인재 등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경연장은 신하들의 사람됨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며, 신하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학문을 폐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6) 『중종실록』 8년 3월 7일.

27) 『성종실록』 10년 4월 21일.

28) 『중종실록』 12년 2월 23일; 『중종실록』 2월 29일; 『중종실록』 33년 2월 23일; 『중종실록』 38년 4월 6일.

2. 경연교재와 역사서 독법 논의

1) 경연교재

경연교재는 주로 경서와 역사서로 구성되었다. 경서를 체(體)로, 역사서를 용(用)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초기부터 견지되었다. 성리서로서 『성리대전』과 『근사록』이 각각 세종과 문종 때부터 강독되기 시작했다. 이들 성리서와 『중용』은 특별히 성리학에 이해가 깊은 학자들을 뽑아 진강을 준비하도록 하였다.²⁹⁾

세왕의 학문으로서 경서, 특히 사서(四書)가 중시되었던 것은 사서를 통하여 수신의 요법, 즉 이치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내면을 바로잡는 요체를 체득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³⁰⁾ 책을 읽는 방법에서도 단지 구두(句讀)만을 해서는 안되고, 도덕의 근원, 도덕적 삶의 이해, 수기치인의 방법 등을 경연관들과 논란할 것이 강조되었다.³¹⁾ 경연관들과의 ‘논란’은 경연 강독 중에 가장 강조되었던 것으로, 종종이 경연을 부지런히 했으면서도 치도에 있어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은 경연에서 깊이 논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³²⁾

경연의 강독 교재는 당대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예컨대 성종대에는 중국 당나라 태종의 치도를 기록한 『정관정요』를 두 차례 진강할 뿐 아니라 『전한서』 『후한서』의 별도의 교재로 한사(漢史)를 강독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에서 상당한 치적을 쌓은 당(唐) 태종이나 한(漢)의 제왕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들의 정치가 상당한 치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유가적 관점의 화민성속(化民成俗)으로 여겨질 수 없다³³⁾는 성리학의 왕도정치의 이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음으로써 중종대에는 이들 책을 진강하지 않았다.

중종대에는 경연에서 『소학』이 진강되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소학』 강독은 위인지학에 치중하고 있는 당시의 학문 풍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식이 있는

29) 『성종실록』 7년 10월 8일; 『성종실록』 13년 6월 23일; 『중종실록』 5년 11월 11일.

30) 『세종실록』 12년 8월 22일.

31) 『중종실록』 2년 10월 23일; 『중종실록』 9년 3월 8일; 『중종실록』 11년 2월 19일.

32) 『중종실록』 2년 10월 23일; 『중종실록』 9년 3월 8일; 『중종실록』 37년 8월 24일; 『중종실록』 38년 5월 3일.

33) 『近思錄』 「治道」, “唐有天下, 雖號治平, 然亦有夷狄之風, 三綱不正, 無君臣·父子·夫婦, 其原始於太宗也.”

사관을 제수하거나 월강(月講), 불시의 정시(庭試) 같은 종래의 방법만으로는 안되고³⁴⁾ 더 나아가 왕 자신이 『소학』을 읽음으로써 학자들에게 수신의 공부에 주력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³⁵⁾이 제기되었다.

개국 초기에서 중종대까지 경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책으로는 『서경』, 『대학연의』, 『자치통감강목』을 들 수 있다. 당우 삼대 성왕들의 기록인 『서경』은 “제왕이 마음을 간직하고 다스림을 펴는 근본”³⁶⁾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경연관들은 『서경』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임금의 정치적 태도를 비판하는 준거로 삼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자치통감강목』(이후 『강목』)은 주희가 편찬의 원칙을 세우고 그의 제자 조사연(趙師淵)이 편집한 역사서이다. 세종이 『강목』을 100번을 읽었다는 일화가 자주 인용되었고, 사실의 기술과 성리학적 역사인식에 의해 평가한 역사서³⁷⁾라는 점에서 사중지경(史中之經)으로 인식되었다. 『강목』은 주(周) 위열왕(威烈王) 23년(기원전 403)부터 후주(後周) 현덕(顯德) 6년(959)의 1392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송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송사』, 『송감』과 같은 별도의 역사서를 필요로 했다. 『강목』은 장기간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기 때문에 성리학의 왕도 정치의 쟁점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주되어 나타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였다.³⁸⁾ 실제로 중종 9년의 기사에는 『강목』을 진강하면서 절의를 높이는 문체, 대신들의 역할, 환관의 폐해, 불교 비판, 인재 등용 등의 문제가 당대의 문제와 결부되어 많이 논의되었다.

『대학연의』는 송(宋)대의 진덕수(眞德秀)가 『대학』의 3강령 8조목에 역사적 예를 덧붙여 만든 책으로 철학과 역사가 결합된 형태의 책이다. “임금이 『대학』을 모르면 다스림의 근원을 알 수 없고, 신하된 사람이 『대학』을 알지 못하면 임금을 바르게 하는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³⁹⁾ 『대학』의 원문에 경사(經史)에서

34) 『중종실록』 3년 10월 10일.

35) 『중종실록』 12년 8월 29일.

36) 『중종실록』 3년 10월 13일.

37) 『강목』은 범례—강(綱)—목(目)으로 구성되었는데, 범례에서는 역사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강(綱)에서는 포괄의 기준에 의해서 핵심적 기사를 서술하고, 목(目)에서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등에서 발췌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였다.

38) 吳恒寧, 「朝鮮初期 經筵의 『資治通鑑綱目』 강의」, 『韓國思想史學』, 9권(韓國思想史學會, 1997).

내용을 덧붙이고 거기에 당대 학자들의 의견을 실음으로써⁴⁰⁾ 제왕 교육의 핵심적 교재가 되었다.

2) 역사서 독법을 둘러싼 논의

경연이 진행되면서 역사서 진강에 대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치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임금의 덕을 증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서를 강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주장되었지만 역사서의 학습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구체적 사례집인 역사서는 임금으로서 경계할 것과 배워야 할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왕에게 중요한 공부로 받아들여졌다. 즉 역사서 속에 등장하는 시대와 왕이 처한 시대는 다르지만 왕에게 핵심적 권력이 주어지는 군주사회에서 신하들의 간쟁, 외척과 환시, 인재 등용, 치심의 문제 등은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감계(鑑戒)로서의 역사 공부”라는 의의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함정이 또한 제기되기도 하였다.

안국(安國)이 또 아뢰기를, “...처음 폐주가 『춘추(春秋)』를 진강하였는데, ‘인욕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한다.’는 대목 같은 것은 전혀 치의(致意)하여 강명하지 않되, 혹 난적을 주살한 일에 이르러서는 거듭 물었고, 또 그가 내린 분부에서는 반드시 춘추시대 강신(強臣)이 반란한 일을 말하였으니, 이 한 생각이 마침내 큰 실패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 우문흥화(右文興化)하는 도

39) 『大學衍義』 「序」, “為人君者, 不可以不知『大學』, 為人臣者, 不可以不知『大學』, 為人君而不知『大學』, 無以清出治之源, 為人臣而不知『大學』, 無以盡正君之法.”

40) 『대학연의』는 ① 제왕의 정치하는 순서(帝王爲治之序), ② 제왕의 학문하는 근본(帝王爲學之本), ③ 격물치지의 요법(格物致知之要), ④ 뜻을 거짓없이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법(誠意正心之要), ⑤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는 요법(齊家之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제왕의 정치하는 순서는 『대학』의 3강령을 경전을 통해 확증하였다. ② 제왕의 학문하는 근본에서는 성왕·현왕들의 예와 그 반대의 경우를 실었다. ③ 격물치지의 요법은 1) 도술을 밝힘(明道術), 2) 인재를 분별함(辨人材), 3) 정치의 대체를 깊이 탐구함(審治體), 4) 백성을 실정을 고찰함(察民情)으로 구성되었다. ④ 뜻을 거짓없이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법은 1) 경을 높임(崇敬畏), 2) 방탕과 욕망을 경계함(戒逸欲)으로, 수신(修身)의 요법에서는 1) 언행을 삼가함(謹言行), 2) 위의를 바르게 함(正威儀)으로 구성되었다. ⑤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는 요법은 1) 배필을 중요히 할 것(重妃匹), 2) 내치를 엄격히 할 것(嚴內治), 3) 국본을 정할 것(定國本), 4) 외척을 가르칠 것(教戚屬者)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신(修身)의 조목들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이루는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리가 지극하기는 하지만, 모두 부문(浮文)만을 숭상하고 성리의 학문은 알지 못합니다. 성종조에는 『성리대전』을 진강하였고, 김응기(金應箕)가 이학(理學)을 해득한다 하여 특별히 외관으로서 시강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또한 문신으로 하여금 이학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진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옳습니다.”⁴¹⁾

역사서를 읽으면서 선왕들의 선(善)과 불선(不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하지만 임금의 지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경계할 것은 많고 배울 것은 적은 『춘추』⁴²⁾와 같은 역사서의 학습은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연산군이 보여준 바와 같이 선과 불선을 거꾸로 배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서보다는 이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자신의 삶의 지향으로 삼는 수신의 공부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주희(朱熹)는 『춘추』를 읽고 있다는 문인에게 “『좌씨전』이나 상소문에 쓰인 말은 모두 시사나 이해에 관한 것이어서 배우는 사람이 절실하게 몸으로 익혀야 할 시급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언(空言)이 되는 것이 매우 심합니다”⁴³⁾라고 하여 경계한 바 있다. 즉 성현들이 일상의 일을 통해 가르쳐준 것을 실천하고 새기면서 이치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향성이 분명해진 후에 역사서를 읽어야 하고, 이러한 것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의 역사서 공부는 성리학적 문제의식이 간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중종대 경연에서는 왕의 성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역사서 학습이 갖는 잠재적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역사서를 읽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것은 역사서의 진강이 이야기 중심의 독해가 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종 4년에는 『강목』을 진강하면서 사건의 전개와 평가를 강독시간 안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는 분량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⁴⁴⁾는 경연관의 건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중종은 진강의 양을 늘리도록 하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다시 제기되었다.

41) 『중종실록』 4년 6월 10일.

42) 『중종실록』 3년 10월 13일.

43) 『朱熹集』 卷35, 「答呂伯恭」, “至於左氏奏疏之言, 則皆時事利害, 而非學者切身之急務也, 其為空言, 亦益甚矣, 而欲使之從事其間, 而得躬行之實, 不亦背馳之甚乎?”

44) 『중종실록』 5년 8월 9일.

홍문관 부제학 이자견(李自堅) 등이 와서 아뢰기를, “학문은 한갓 눈을 거치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정밀하고 깊게 본받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사전(史傳)은 한 가지 일이 어떤 것은 7~8장에 이르는 것이 있으니, 읽다가 중도에 그만둔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⁴⁵⁾

즉 역사서를 읽을 때에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학』에서는 경서의 학습법을 성현들의 말을 정밀하게 살피고 자신에게 비추어 절실하게 음미하는 것으로 제시한다.⁴⁶⁾ 즉 경서의 학습은 글자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붓는 과정이다. 인용문에서는 역사서를 읽더라도 그 핵심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과 자신을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옛사람이 마음을 써서 산삭(刪削)한 곳에 한두 번 눈이 지나갔다고 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⁴⁷⁾ ‘정밀하고 깊게 본받고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역사서 읽기가 전시대의 일에 대한 한가로운 이해와 비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대에 나아갔다. 참찬관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고려사』같은 것은 상께서 혼자 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학연의』와 『고려사』는 비록 비교가 안되지만 우리 동국(東國) 군신들의 현명 여부가 명백하여 권면과 징계가 될 수 있으니 진장을 끝내야 한다. 무릇 사기(史記)는 해독하기가 쉬우나, 오직 이 성리서(性理書)는 깊이 생각하여 반복해보지 않으면 풀여지지 않는다.” 하셨다. 시강관 유보(柳溥)가 아뢰기를, “이는 성리학의 기본이니, 항상 체념하신다면 옛 제왕들의 심학(心學)의 전통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문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요지를 살펴서 마음 다스리는 궁극에 도달하기를 구해야 하고, 심상히 여겨 경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전경 안처순(安處順)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에 ‘사학(史學)은 알기 쉽다.’ 하셨는데, 신의 생각에는 역사를 읽을 때 그 성패(成敗)를 보아 권면과 징계를 삼으려면 반드시 그 의미를 깊이 파본 다음에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사학이 어찌 알기 쉬운 것이겠습니까?” 하였다.⁴⁸⁾

45) 『중종실록』, 5년 8월 9일.

46) 『소학』 「嘉言」, “學業則須是嚴立課程, 不可一日放慢, 每日須讀一般經書, 一般子書, 不須多, 只要領精熟, 須靜室危坐, 讀取二三百遍, 字字句句, 須要分明.”

47) 『중종실록』, 5년 9월 3일.

임금 스스로 『고려사』의 강독에 ‘권면과 징계’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사학은 알기 쉽다’는 말 속에 비평가가 아닌 실천자로서 체인하고자 하는 왕의 의지를 읽기 어렵다. 이것을 간파한 경연관은 치란의 역사 속에서의 교훈과 경계를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읽고 그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역사서를 통해 문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치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옛 임금의 정치의 선악(善惡)을 관찰하여 자기의 선악을 검토하는 것”⁴⁹⁾에 있으며, 이것은 단지 글 속에서 치도의 방법을 차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임금 자신을 글 속에 관련시킴으로써 ‘요지를 살펴서 마음 다스리는 궁극에 도달해야 한다. 역사서 읽기도 결국 성리학적 삶의 원리를 왕 자신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체인하는 수신을 위한 공부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경연관과 임금의 관계

임금과 경서를 읽고 논란하는 직책을 맡은 경연관과 임금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왕세자가 사부를 맞을 때에는 직접 계단 밑에까지 내려오고 돈수재배(頓首再拜)로 인사했던 것과⁵⁰⁾ 달리, 경연에서는 경연관들이 부복(俯伏)한 자세로 입시하였다.

직급에서도 서연의 경우보다 낮아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즉 서연은 빈객이 진강하는데, 경연에서는 당하관이 강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규정대로 당상관이 진강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연이 낮은 사람이라고 임금에게 진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당상관들은 각기 맡은 일이 있다는 이유로 전례를 따르기로 하였다.⁵¹⁾ 이후 성종 17년에는 재상 중에 2인씩 돌아가면 특진관의 이름으로 경연에 참여하도록 하였지만, 서연보다 낮은 직급의 관원을 경연관으로 삼은 이유는 제왕 교육기관으로서 경연의 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기실 똑같은 질문이 세종대에도 제기되었다. 세종은 이에 대하여 “권근이나 변계량 같은 명유가 있다면 같이 강론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하필 2

48) 『중종실록』, 11년 9월 29일.

49) 『중종실록』 11년 2월 23일.

50) 『중보문헌비고』, 77권, 예고24.

51) 『성종실록』 14년 2월 24일.

품 이상이 시강해야 하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⁵²⁾ 선비들의 공부에 대해 한 수위에서 조언하는 것 같은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세종에게서 경연관을 학문을 논란하고 국정을 토론하는 파트너로 이해하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중종대에 들어서 경연관들의 위상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변화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임금의 높은 지위가 수신의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더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제기되었다.

경연은 학문만 일삼을 뿐 아니라, 어진 사대부를 만나 정체(政體)를 자문하는 것 또한 중한 일입니다. 만약 구중(九重)에 깊이 거처하시면, 총명(聰明)이 날로 가리워져서 편안하려는 마음이 따라서 생기실 것입니다.⁵³⁾

다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아는 것(知人)입니다. 인주는 구중에 깊이 거처 하셔서 접하는 때가 (정해) 있으니 밖의 일을 어떻게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 환관들일 뿐이니 환관들이 어떻게 밖의 일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환관들에게 알아보도록 시키고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틀림없이 큰 해가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군신을 접하는 때에 깊이 살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⁵⁴⁾

임금의 높은 지위와 거처는 임금의 수신 공부에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다. 높은 지위는 인일로 이끌고 궁궐은 올바른 진언들로부터 너무 멀기 때문이다. 성종대에 특진관 제도를 둔 것은 “임금이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⁵⁵⁾라고 하면서, 임금이라는 지위가 갖는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보필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점점 경연관들 자신의 역할을 봉우로 설정하는 쪽으로 발전된다. 사대부들에게는 봉우가 있어서 논란하고 보도하지만, 임금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52) 『세종실록』 20년 11월 23일.

53) 『중종실록』 3년 9월 6일.

54) 趙光祖, 『靜菴集』 卷3, 「經筵陳啓」, “但有最難者, 知人是也. 人主深居九重, 接對有時, 外間之事, 豈能盡知? 況其親近者, 惟宦寺而已. 宦寺豈能誠知外間之事乎? 就使知之, 人君若聽其言, 則必有大害矣. 須於接對群臣之際, 極其審察, 可也.”

55) 『중종실록』 1년 11월 5일.

없음을 지적하면서 사대부들을 만나는 자리를 절차탁마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12년 이후에 더욱 직설적인 어법으로 발전한다. 임금도 사대부들 신하의 예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과 함께 도의를 강마함으로써 봉우의 도리를 함께 해야 한다거나⁵⁶⁾ 당대의 학문적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임금 스스로가 선비를 높이고 학문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식으로 강제하였다.⁵⁷⁾

이러한 경연관들의 자기정립은 진강방식을 바꿀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종종 초반부터 성종과 연산군의 상반되는 예를 들어서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신하들이 마음 놓고 진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그것은 임금과 경연관들의 만남의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한충(韓忠)이 아뢰기를, “...평소 유생(儒生)들이 벗들과 담론할 때에 반드시 정신을 모으고 단정히 앉아 엄연(儼然)히 사색하듯 한 후에야 지기(志氣)가 단정하고 언어의 순서가 있었으니, 조하(朝賀)·조참(朝參) 같은 평소에는 모르거니와, 경연 때는 교의에 앉지 마시고 평좌(平坐)하시어 강론하기에 편리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평소에 임금이 격식을 갖춘 자세로 아랫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위에서 듣거나 아래서 전달이 모두 제대로 되지 못하였으니, 정의(情意)가 서로 통했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서책에 실린 것은 모두 성현들의 아름다운 말과 어진 행적으로서 설만히 해서 안됩니다. 진강할 때 밟고 다니는 자리에다 서책을 펴놓는 것은 또한 존경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에는 서안(書案)을 만들어 경연관들의 앞에 늘어놓고, 서책을 그 위에 펴고 앉아서 진강하게 함이 어떠할까 합니다. 지금 중흥하여 개혁하는 때에 당했는데 원자의 나이가 점점 자라니 마땅히 이런 규범을 세워 경연관을 대우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⁵⁸⁾

경연관의 주장은 왕으로서 신하들의 보고를 들을 때의 격식과 학문을 논의하는 자리의 격식은 달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하와 임금으로서 만나는 회의에서는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더라도 성현의 글을 읽는 경연에서는 임금과 신

56) 『중종실록』 12년 3월 6일; 『중종실록』, 12년 윤12월 21일.

57) 『중종실록』 13년 1월 18일.

58) 『중종실록』 11년 11월 16일.

하가 평좌하자는 것이다. 평좌는 정치적 측면에서 임금과 신하는 상하관계이지만 학문, 즉 유학의 도를 숭상하는 면에서는 같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다.⁵⁹⁾ 좌강을 주장하는 근거로 지인(知人)의 논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부복한 자세로 진강할 때에는 숨이 막혀 생각을 다 말하기 힘들지만 좌강을 하게 되면 신하들이 남김없이 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의 얼굴빛을 살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일련의 요구에 대하여 중종은 “임금의 경우에는 군신의 분수가 지극히 엄하기 때문에 서로 벗할 길은 없다. 그러나 시종하는 신하와 서로 강론한다면 이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다”⁶¹⁾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거부하지만, 사람들은 ‘후세에 (임금의) 사부(師傅)의 소임이 없으니 경연관이 담당할 수 있다.’고 한 정이천의 말을 인용하면서 스스로를 임금의 파트너이자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⁶²⁾

좌강에 대한 요구는 기묘사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연에서 왕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도권을 갖고자 했던 왕과 학문적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했던 경연관들의 요구가 경연에 지속적으로 남아 긴장과 갈등을 이루고 있었다.

IV. 결론

연구자는 경연제도가 어느 정도 완속되어가는 시기인 중종기까지를 대상으로 경연의 이념과 전개 과정을 고찰하였다. 성인군주론의 이상과 그것이 경연제도를 통해 정착되는 과정을 경연설강의 형태, 강독교제, 경연관과 임금의 관계를 통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 사상은 “화민성속”의 이상사회가 무엇보다 통치자의 수신에 근거한다고 이해한다. 경연은 통치의 최정점에 있는 왕이 무엇보다 학문을 통해 이치를

59) 『중종실록』 12년 8월 12일.

60) 『중종실록』 11년 6월 2일.

61) 『중종실록』 12년 윤12월 11일.

62) 『중종실록』 13년 9월 20일.

이해하고 체현한 성인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둘째, 경연이 진행되면서 소대와 아대의 새로운 형태의 경연이 생겼다. 그것은 왕의 학문에 있어서 지식관료의 위상이 명확해지는 것과 관련된다. 경연에서의 왕과 신하의 관계가 “학문”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봉우관계로 설정되었고, 이들과 항상 논란함으로써 왕의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강론 방식에 있어서도 왕과 신하가 평좌하여 강론하는 좌강을 주장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셋째, 강독 교재는 경서가 중시되는 가운데, 역사서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역사서의 학습이 역사를 이해하거나 치평을 이룬 전세대의 제도와 정책을 배워 응용한다는 것을 넘어서 역대의 치란에 비추어 왕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것이 강조되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조선시대 전기 경연의 특징을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연의 학문은 왕의 수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진정한 왕의 리더십, 왕으로서의 통치의 정당성은 왕의 수신에 기초한다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왕의 학문은 불가결한 것이었다. 초기의 왕들이 경연을 왕이 하는 학문 정도로 이해했던 것으로부터 경연의 학문이 왕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강독내용에 있어서도 경서의 강독에서는 물론이고 역사서의 학습도 결국 수신을 위한 공부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둘째, 경연에서의 지식관료와 왕의 관계가 학문의 논리로 설정됨으로써 정치적 논리를 상대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대부와 왕에게 자신들이 지향해야 할 학문의 논리에 대한 여지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비판과 토론의 기반이 되었다.

경연을 통해 사대부들과 왕은 수신의 원리와 유가 정치철학을 공유하고 그것으로부터 당대 정치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파트너로서 자리잡아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립된 경연의 위상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종은 기묘사화 이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경연을 열었다. 역사서의 강독에서 분량을 늘려서 강독하게 하거나 경연에서 자신이 읽는 것조차 생략하는 식으로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었지만,⁶³⁾ 경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중종은 성인군주의 요구를 쉽

63) 『중종실록』 20년 8월 28일; 『중종실록』 24년 11월 5일.

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경연을 폐지할 수도 없었다.

중종대 이후의 학자들이 이전의 경연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개해왔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 중기 경연의 몇몇 단편들은 이 시기 경연 교육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말년에 『주역』에 심취해있던 선조에게 경연관은 제왕의 학문으로 시급한 것은 사서(四書)와 『대학연의』이지 『주역』은 아니라고 말한다. 선조는 “마음을 다스리기에는 사서만한 것이 없지만, 미연의 일을 미루어 말하는 『주역』의 공부 왜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항변하면서 “『대학』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대학연의』 같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따져 묻는다.⁶⁴⁾ 자신의 집권기에 나라가 외세의 수모를 겪은 상황에서 사태를 예견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회한이 말년의 선조를 『주역』에 매달리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선조에게는 수신(修身)의 문제만큼이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절박한 문제였을 것이다. 적어도 이 시기 사대부의 학문과 제왕의 학문은 어떻게 같고 달라야 하는가, 그것이 제왕 교육 속에 어떻게 안배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둘째, 성종과 중종의 경우 많은 경우 하루 3~4회의 경연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학문은 시종 같아야 하며, 항상 사대부를 곁에 두고 논란함으로써 학문이 성취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성리(性理)의 학문이 하루에 3~4회의 강독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지 않았다. 성리의 학문은 극기의 엄격함도 필요하지만 정좌의 고요함도 필요하다. 이후의 경연 기록에서 글의 깊은 의미를 온역(溫繹)하는 날에는 주강을 정지하게 한 것⁶⁵⁾ 등은 전기의 제왕 교육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64) 『선조실록』 36년 5월 6일.

65)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1월 6일;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9월 19일; 『승정원일기』 효종 1년 6월 4일.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맹자』; 『논어』; 『대학』; 『근사록』; 『소학』; 『증보문헌비고』(www.krpia.com).

趙光祖, 『靜菴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姜泰訓, 「朝鮮 前期 經筵制度의 發達 過程」. 『教育學研究』 31, 한국교육학회, 1993, 119~131쪽.

權延雄, 「世宗朝의 經筵과 儒學」. 『世宗朝文化研究(I)』. 서울: 博英社, 1982.

權延雄, 「朝鮮 成宗朝의 經筵」. 『韓國文化의 諸問題』. 서울: 시사영어사, 1985.

權延雄, 「朝鮮前期 經筵의 諫諍論」. 『慶北史學』 14, 慶北史學會, 1991.

權延雄, 「朝鮮 中宗代의 經筵」. 『史學論叢: 吉玄益教授停年紀念』. 서울: 吉玄益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刊行委員會, 1996.

南智大, 「朝鮮初期 經筵制度: 世宗·文宗年間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117~170쪽.

박성순, 「조선중기 經筵科目 『心經』의 정착과정과 그 정치적 의미」. 『韓國思想史學』 22, 韓國思想史學會, 2004, 167~208쪽.

吳恒寧, 「朝鮮初期 經筵의 『資治通鑑綱目』 강의」. 『韓國思想史學』 9, 韓國思想史學會, 1997, 115~149쪽.

鄭在薰, 「조선중기의 經筵과 帝王學: 光海君~顯宗年間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184, 歷史學會, 2004, 167~208쪽.

池斗煥, 「朝鮮前期 『大學衍義』이해과정」. 『태동고전연구』 10, 태동고전연구소, 1993, 337~364쪽.

池斗煥, 「조선전기 경연관 직제의 변천」. 『한국사논총』 2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51~71쪽.

郭齊·尹波(點校), 『朱熹集』. 四川: 四川出版社, 1996.

黎靖德(編)/王星賢(點校),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83.

국문 요약

연구자는 경연제도가 어느정도 완속되어가는 시기인 중종기까지를 대상으로 경연의 이념과 전개 과정을 고찰하였다. 성인군주론의 이상과 그것이 경

연제도를 통해 정착되는 과정을 경연설강의 형태, 강독교재, 경연관과 임금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조선 전기의 경연의 특징을 대략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연의 학문은 왕의 수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진정한 왕의 리더쉽, 왕으로서의 통치의 정당성은 왕의 수신에 기초한다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왕의 학문은 불가결한 것이었다. 초기의 왕들이 경연을 왕이 하는 학문 정도로 이해했던 것으로부터 경연의 학문이 왕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강독내용에 있어서도 경서의 강독에서는 물론이고 역사서의 학습도 결국 수신을 위한 공부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둘째, 경연에서의 지식관료와 왕의 관계가 학문의 논리로 설정됨으로써 정치적 논리를 상대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대부와 왕에게 자신들이 지향해야 할 학문의 논리에 대한 여지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비판과 토론의 기반이 되었다.

● 투고일 : 2009. 1. 2.

● 게재확정일 : 2009. 2. 26.

● 주제어(keyword) : 경연(Gyong-Yon, Classics Mat), 성왕(Sage-King), 학문적 관계(Academic relationship), 수기치인(Self-cultivation and ruling others).